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購讀料 壹部(朝夕刊)金五錢 壹個月 先金壹圓 參個月 先金參圓 六個月 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 壹行 壹圓 四號 ... 特號 ... 指定料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社說

朝鮮人과 產業問題 (二)

努力와 餘地가 果然업는가

一

經濟의 破滅을 부르지저 金石을 두다린과가튼 激越한 소리를 내이매 그것이 곳 萬人의 귀를 울리여 骨髓에 사모치게하는바 잇슴을 안다 外來者의 橫暴를 糾彈하고 現狀의 打破와 社會의 改造를 부르지저 大衆解放의 根本的 認識을 說破하매 萬人의 귀가 움속하고 그외 心血이 끌허오르는줄을 안다 歷史의 必然한 理勢를 드러서 暗澹한 絶望中에 헤매고 잇는 大衆의 압헤 宣佈하니 이 도록 反響이 큰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天下의 大衆을 몰아서 그 死活의 大運命을 決하려함에 다만 이 一片 最後的인 戰術에만 熱中하는것이 善의 善이 아닌것은 明白하다 人類生長의 過程中의 모든 現實的 素는 多이오 또 搖樣 多種이어서 써로는 矛盾과 着要이 잇는 中에 오히려 調和한 合致가 잇는것이다 社會의 改造가 아무리 根本的인 急務이라할지라도 朝鮮人은 오히려 그 自體에 依하야 產業의 發展을 꾀할밧게 업는것이다

二

近者 朝鮮人의 產業이 또한 적이 發展되는바 잇는것은 否認할수 업는 事實이다 農產物의 增收가 든것은 十數年來 顯著한 일이어니와 工產物의 發展도 자못 刮目할 趨勢이라 한다 再昨一年동안 全南一道의 工產額이 一躍 八千餘萬圓에 達하야 全朝鮮各道의 第一位를 차지하엿다하거니와 二億數千萬圓을 算하는 工產總額中에는 漸次 日本人의 그것을 壓倒하는바 잇다한다 人口로서 日本人의 約五十倍에 相當한 朝鮮人의 工產額이 겨우 그를 壓倒함에 그친다 할진대 그의 貧弱함이 놀랠만하거니와 幼稚한 境域에 잇는 朝鮮人의 工業이 또한 漸次 向上發展의 途程中에 잇다는것만은 매우 確實하다 小規模의 工業과 및 大部의 手工業의 境域을 벗지못한 朝鮮人의 工業이지마는 今後의 努力에 依하야 오히려 相當한 發展을 볼것은 의심업는바이다 現在 京城附近에서 經營되는 比較的 大規模인 工業도 자못 볼만한 發展이 잇고 西朝鮮一帶에서 漸次 發展하는 小規模의 工業도 또한 오히려 그 有爲한바 잇슴을 囑望할수 잇다 經濟的 國境이 撤去되고 資本的 威壓이 날로 甚하오는 날에 잇서서 朝鮮人의 產業의 民族的 發展을 想望함이 매우 虛妄한바 어니와로서 產業의 運動을 等閑히 한다 할진대 그는 돌이어 理論에 殉하야 現實을 저바림이 될뿐 아니라 自我의 生存에 對하야 不忠한 바잇다 할것이다

三

一千四百餘町의 廣大한 未墾地가 日本人 鳩山某의 手中에 들어가기까지에는 그의 一部에 對한 地元住民의 開墾運動도 잇섯다 한다 그러나 朝鮮의 資本家는 일즉이 着眼하야 開拓에 從事코저한 者 업섯다 一時 五百萬本의 大造林을 要하는 平南의 山岳地帶에는 또한 彼等 住友 片倉의 韓보다 압서서 이 安全하고 또 永久한 殖產業을 講究한 者 업섯다 果百萬의 資本으로써 朝鮮物產의 國外輸出을 企劃하는것은 바로 顯念하고 開策하지 아니도 아니거지마는 畢竟은 모다 水泡에 돌아가고 말엇다 集中된 大資本이 彼等에게 잇고 庇護하는 權力이 彼等에게 잇스며 온갖의 便宜한 條件이 아울러 彼等에게 잇는지라 이러한 利權이 모주리 彼等에게 돌아가는것은 새삼스러히 놀랠바가 아니지마는 集中과 聯結이 잇는 곳에는 朝鮮人의 富裕階級에도 이만한 資本이 全혀 업슴이 아니엇고 그 機會도 또한 全혀 剝奪만 되엿다고는 생각할수 업다

四

咸南近海의 明太漁業이 自動船과 優良한 漁具等을 使用하는 資本主義組織에 依한 日本人漁業者에게 侵害되어 數千住民의 一大威嚇을 哀訴하게 되는 反面에는 生產의 手段을 고칠줄 모르는 朝鮮人의 企業者들에게도 莫大한 缺陷이 잇는것이다 外來資本의 侵略 劣弱經濟의 破滅을 絶叫하는것은 確實히 時代의 소리이다 그러나 온갖것을 들어 그의 罪로써 돌리고 스스로 眞摯한 努力을 缺하는것이 잇슬진대 그의 淺薄함을 慨嘆할바는 아닌가? 이것이 남의 일일진대 오히려 對岸火視할수 잇스려니와 變通업는 나의 일인바에 一百番 고처 생각하지 아니할수 업고 一時의 閑餘事가 아니라 永久한 民族的 死活의 問題이라 할진대 목에서 피나도록 最後的인 努力을 아니할수 업다

墨國政府에서 英佛僧侶捕縛

百餘名에게 退去强請

(나우엔 二十九日發) 墨西哥政府는 英佛의 僧侶 百餘名을 捕縛하야 四十八時間以內에 退去를 强請하엿다더라

羅波間에 調印된 攻守同盟條約

(뷀도無線 二十八日發) 羅馬尼亞外相 『쫀떼유카』氏와 羅馬駐箚波蘭公使는 二十八日에 『푸가레스트』에서 新히 兩國間에 締結된 攻守同盟條約에 調印하엿다 右는 千九百二十一年三月三日에 五個年間의 期限으로 調印되엿던 舊約에 代할것으로 特別裁判條約을 包含하엿더라

『오루레안』公逝去

佛蘭西王家의 嗣孫

(伊太利電) 『오루레안』公은 廿八日에 逝去하얏는데 公은 一八六九年 英國에서 生한 『두이』의 子로 佛蘭西王家의 嗣孫이엇다더라

吳佩孚軍이 玄江丸을 射擊

一名卽死、四名負傷

(漢口二十九日發) 日淸汽船 玄江丸은 昨日 岳州에서 吳佩孚軍의 射擊을 受하야 彈丸이 船體에 集中되야 船客一名은 卽死하고 四名은 負傷하엿다더라

吳佩孚는 政局을 觀望

(東京電) 某處着電에 依하면 吳佩孚는 北京政局의 變化如何에 不拘하고 當分 漢口에 在하야 政局을 注視할터이라더라

張宗昌唐山行

(東京電)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張宗昌氏는 張學良氏와 會見하기 爲하야 二十八日朝 天津을 發하고 唐山에 向하얏다가 更히 相携하고 山海關에 向하야 張作霖氏와 會見할터이라더라

貨車撤去事件解決?

(東京電) 山東鐵道貨車撤去事件에 對하야 曾往부터 日本政府는 濟南藤田總領事를 經하야 中國側에 抗議中이던바 直魯軍이 天津方面에 侵入하얏슴으로 鐵路局長은 右貨車全部 一千四百輛을 從前과 如히 돌리어보내기로 同意하고 同鐵路車輛課長은 二十九日 此旨를 藤田總領事에게 回答하얏다더라

國軍의 銀行團脅迫

(天津電) 國民軍은 北京을 撤退하야 南口以北에 屯陣하기로 決한 後 銀行團을 脅迫하야 三百萬元의 調達을 命하얏는데 銀行團은 四十萬元으로 減額하야 달라고 哀願하는 中이라더라

京大總長 服部博士確定

(東京電) 來四月로부터 開校할 朝鮮京城大學總長은 東京帝大敎授 服部宇吉博士로 確定되얏다더라

佐藤正式起訴

(東京電) 田中大將 三百萬圓事件을 摘發한 佐藤軍吉은 詐欺罪에 依하야 三十日 正式으로 起訴收監되엿더라

改正法案 實施期早速은 豫定輸入防止

(東京電) 第五十一議會를 通過한 關稅定率法의 改正法律은 二十九日 官報로써 公布된 後 期日로 施行되엿는바 右法令은 四月一日부터 公布施行할터이엿스나 同法의 性質上 議會通過後 施行期日을 遷延할 時는 豫想輸入 其他에 依하야 過渡的 減收가 增加할 憂慮가 잇스리라는 豫定으로 三日을 速히하야 二十九日부터 施行한것인데 此 三日間의 貿易高를 約三、四千萬圓으로 認定할 時는 相當한 關稅의 增收를 볼것이더라

關稅改正案 公布施行

(東京電) 第五十一議會를 通過한 關稅定率改正案은 二十九日 官報號外로써 公布施行되엿더라

閣議決定事項

(東京電) 三十日의 日本閣議는 午前十時로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幣原外相으로부터 最近의 外交經過와 中國動亂에 關한 報告가 有한 後 財部海相으로부터 揚子江沿岸의 警備에 對하야 報告가 有하얏는데 當面의 重要政務를 審議하고 政府의 新政策樹立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한 後 正午에 散會하얏는바 決定事項은 左와 如하더라

一、大正十三年勅令第三十號內閣所屬職員臨時設置에 關한 件中改正의 件
一、明治神宮造營官制改正의 件
一、稅制整理에 關한 施行規則並 廢止勅令十三件
一、民事訴訟並區役所廢止에 關한 法律二件上奏의 件

『所謂良州逸史』

郡守道評議員等唱和로 迷習助長兼돈버리計劃

聲罪文撤布! 郡民大會!

去二十四日 梁山靑年會에서는 良州逸史事件에 對한 對策講究會를 開催하고 五六百名群衆이 會集하야 臨時議長 崔學鮮氏 司會로 全慶南弊害의 莫大함을 累述한바 同會는 畢竟 警察의 解散을 當한 後 群衆은 더욱 憤慨하야 將次 郡民大會를 召集키로 準備中이라는데 이제 그 所謂良州逸史의 大畧顚末을 同事件聲罪文에 據하건대 同郡內 古今逸史를 蒐集한다는 名目을 稱托하고 孝子節婦 兩班文人等을 捏造하야 時代에 逆抗되는 愚民의 延班的 迷習을 助長하는 同時 私利를 圖하는 妖怨이 狼籍한데 卽 同冊價의 實費 略一圓五十錢에 不過한것을 平均 十圓式되는 同講金을 收하는 等이라 云云하얏스며 前記靑年會委員이 郡守에게 質問한바 郡守는 『私股삼아 돈버리가 되리라는 말은 하얏스나 計劃的으로 議論한 일은 업다』하며 共謀者의 面貌를 拒絶하고 逸史編纂停止는 不肯하는 態度를 示하얏다하며 警察外지도 同事件의 不正을 諒解하는듯하다더라(釜山)

大邱裁縫職工

第一定總決議

去廿八日 大邱裁縫職工靑年會第一回定期總會에서는 左記各項을 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敎養에 關한 件 一、賃金에 關한 件 一、時間制限에 關한 件 一、負擔金에 關한 件 一、負擔金納入方法에 關한 件 一、救護에 關한 件

◇改選
車映鎬 朴珍煥 金仁性 李永贊 金元錫 朴萬出 徐丙周 李議五 李正業 朴三遂(大邱)

面費로서 申報課讀反對

公州郡新上面 面協議會에서

公州郡新上面協議會에서는 各事項을 三日間이나 討議한바 十五年度歲入歲出預算額 九千四百九十圓(前年에 比하야 五百三十七圓 增加)와 其他는 原案대로 通過하엿다하며 協議員으로부터 每日申報를 面經費에 編入하야 區長에게 購讀케함은 不當타하야 豫算額에 編入을 激烈히 反對하엿다더라

松都面戶別割 每戶平均四圓

今番開催된 開城松都面協議員會議에서 改定된 大正十五年度 戶別割賦課額은 總計 三萬二千六百八十圓 賦課總戶數 八千一百七十戶로 全部를 二十七等에 配定한바 每戶平均 賦課도는 四圓假量이 된다더라(開城)

◇女事務員募集 本社抱川支局에서는 事務를 一層擴張하고 女事務員一名을 募集한다는데 資格은 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으로 하고 年齡은 十七歲以上 二十五歲以下로 하며 京鄕을 勿論하고 希望者는 履歷書에 寫眞을 添付하야 志願함이 可하다고(抱川)

安東縣靑年定總

安東縣靑年會第二回定期總會에서는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綱領規約修正에 關한 件(修正委員三人을 選定하야 修正케한 後 二週日以內로 臨時總會에 承認을 要할것) 一、簡易文庫設置의 件 一、演藝會開催의 件 一、敎養班設置의 件

◇改選委員
執行委員長 李大願 執行委員 林錫甫 權挺淳 李獻奎 白雲成(安東縣)

女性問題 講演禁止

北靑에서

北靑女子靑年會에서는 去二十七日에 女性問題大講演會를 開催코저 準備中이던바 北靑警察署에서 不許可로 禁止되얏다고(北靑)

全州精米粄摺 勞働組合創立

去二十八日 全州靑年會館內에서 全州精米粄摺勞働組合創立總會를 開催하고 綱領、規約을 通過한 後 左記執行委員十二人을 選定하얏다고(全州)

◇執行委員
執行委員長 李龍基 執行委員 姜三萬 金昌順 鄭成玉 李德五 表德順 金長權 姜永俊 申正守 金甲喆 申時激 朴泰華

靑年討論盛況

去二十八日 馬山靑年會主催 靑年討論會에서는 朝鮮을 發展식임에는 農이냐? 工이냐? 商이냐?라는 問題로 次記演士가 氣焰을 吐한바 勝利는 農業에 歸하얏다고(馬山)

◇演士
農便 金羅鎭君 姜海井君 金永辰君
工便 姜宗祿君 李廷大君 崔甲時君
商便 朴魯合君 李鳳齊君 金貴東君

讀者慰安演藝

本社尙州支局에서는 本報愛讀者를 慰安하기 爲하야 金泉에서 興行中인 東半藝術團 李明鎬君一行을 當地로 請來하야 去二十四日부터 同六日外지 連三日間 慰安하얏다(尙州)

定山衡平臨總

去十九日 靑陽郡定山衡平分社臨時總會에서는 社員一般의 寄附로 事務室을 建築하되 今春에 期於落成할일과 年齡關係로 學校에 入學키 不能한 兒童敎育의 救濟策으로 事務室을 建築한後 此를 講習所로 利用하고 相當한 敎員을 雇聘하야 兒童을 敎

康津郵便疎忽

全南康津郡邑內郵便所에서는 貴重郵留나 普通郵便等을 勿論하고 郵便을 遲滯하야 一般의 不平이 多大하나 郵便所長 津田은 營利만 目的하야 配達失策을 適當히 주지못함으로 此等不正事實은 알고도 申飭키 不能한가 라더라(康津)

海美事件에 共死生을 決議

群山衡平의 積極的援助

群山衡平分社에서는 去二十七日 海美衡平社紛糾事件에 對하야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次記事項을 決議하고 同時 多數한 同情金도 잇섯다더라

◇決議
一、海美事件에 對하야 當局에서 圓滿한 解決을 與치안는 同時에는 全群山社員은 海美社員과 死生을 가티할것
一、義捐金을 募集할것

智異山

探勝團募集

讀者慰安兼南原記者大會參加

本社泗川支局에서는 本報愛讀者諸氏를 慰安할 兼 南原記者大會에 參加하기 爲하야 探勝團을 組織하야 團員을 募集中인데 時日은 四月十七日出發 二十三日歸還(雨天延期)할 豫定으로 探勝路程은 四月十七日 多率寺宿泊 十八十九兩日 大源寺宿泊 二十日 碧松庵經由 七佛庵宿泊 二十一日 雙溪寺着 二泊 二十三日 自働車로 歸還할터인데 參加金은 每人 十五圓 申請期日은 四月十五日外지(參加金添付) 申請場所는 朝鮮日報泗川支局 注意件은 行裝은 簡易步行準備오 後援은 泗川各靑年會이더라(泗川)

平壤勞聯委員會

平壤勞働聯盟에서는 去二十八日 當地大同門內里門里同會館內에서 定期執行委員會를 開하고 經過及決算報告와 任員選擧 新舊事件等을 討議하엿다고(平壤)

釜山陸上運動

四月十日開催

釜山西部體育會主催의 第三回陸上大運動會는 來四月十八日午前八時부터 釜山第一商業學校運動場에서 始作되리라는바 參加希望者는 男一圓五十錢 女一圓、同伴二圓의 會費를 添하야 四月十五日以內 西部靑年會에 申請함이 조켓다더라(釜山)

第二回全朝鮮 蹴球競技

來五月初 平壤에서

平壤大同門內鹽店里關西體育會에서는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來五月六七八三日間 平壤光成高普運動場에서 第二回全朝鮮蹴球競技大會를 開催한다는데 參加資格은 靑年團、中學團에 限하고 參加金은 徵치 아니한다하며 詳細는 追後發表한다더라(平壤)

順寧農軍委員會

去廿三日 永興郡順寧面農軍會第二回執行委員會에서는 左記諸項을 決議하얏다더라

◇執行委員
(總務部) 金鐸 金平圭 禹一山
(庶務部) 張平也 陳東明 羅致鑾
(敎養部) 金炳秀 禹如山 魏明在
(組織部) 張秀龍 徐信建 李鎭德
(爭議部) 趙正浩 張聖彬 金亨七
(調査部) 許允喆 張尙麟 張東國
張錫允(宣傳部) 張文軫 申承浩
陳成大 韓尙玉(通信部) 金鐵水
金鍊極 趙然後 朴泰東 嚴時明

◇決議事項
一、宣傳標木을 主要地帶에 樹立할일
一、實費結婚과 納幣及禮餠을 廢止하되 會員부터 實行할일
一、朝鮮勞農總同盟에 加盟하기 爲하야 金鐸外三人을 派送할일

江景雇傭親睦例會

去二十八日 江景雇傭人親睦會月例會에서는 五十餘名會員이 出席하야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고

◇任員補選
副會長 韓應甲 庶務部長 兪修鉉 調査部長 專務幹事 朴魯哲 部長 朴秀海 相助部長 李寬燮 財務部長 會長兼任

◇決議
一、會費調定及徵收에 關한 件
二、喪輿購入에 關한 件
三、事務幹事設置의 件
四、相助에 關한 件(江景)

勞働敎育에 熱心

蔚山郡江東面勞働靑年會에서는 無産兒童과 無識勞働者의 啓發을 爲하야 堂舍里와 於勿里洞에 勞働夜學을 創設하고 朴元鎭 金琪樑(堂舍) 朴賛錫 劉在根 勝再甲(於勿) 諸氏가 熱心敎授한다더라(蔚山)

京南少年蹴球

第二回

京南少年蹴球大會는 豫定과 가티 去二十八日 安城公立普通學校그라운드에서 開催되얏는데 優勝은 또 水原勇猛團이라고(安城)

五日間大映畫

普成講習을 救濟코저

慶南蔚山郡東面日山里私立普成講習所는 優秀한 成績으로 維持가 極히 困難한바 方魚津勞働親睦會의 幹部諸氏와 講習會當局者는 地方有志와 合하야 後援會를 組織하고 去廿六日부터 五日間 豫定으로 方魚津活動寫眞館을 二百五十圓에 假貿하야 入場券 三千枚外 지 放賣할 豫定으로 最近 各洞에 行會하하며 勞働親睦會幹部諸氏는 本鄕土가 안인 그 만큼 外部에서 이 自己의 本鄕土가 實한다 하나 其의 熱誠을 讚揚한다더라(蔚山)

◇禮山初有의 라되오 禮山郡禮山面禮山市公醫 伊東吉甫家에는 近日無電受話機를 設置하엿다고(禮山)

◇盈德蹴技盛況 既報盈德靑年會同郡靑年聯盟主催의 陸上蹴技大會는 同郡靑年聯盟主催와 時代本報兩支局後援으로 去廿七八兩日間 開催되야 大盛況을 이루엇다고(盈德)

◇元山水產分配 去二十九日元山水產株式會社株主定期總會에서는 第五期決算報告를 承認하엿는데 本期는 前期에 比하야 利益金도 九百餘圓이 增加된 同時 法定積立金 도 別途積立金으로 一千五百圓을 增하고 配當金은 前期同樣 年五分이라고(元山)

◇泗川繁榮會活動 泗川繁榮會에서는 昨年設立以來 地方繁榮에 對한 硏究努力中인바 今般 古蹟(在來寶人碑石及樓臺) 保存等事業에 着手하기 爲하야 會長은 幹部를 帶同하고 近間各關係諸氏를 訪問한다더라(泗川)

金泉書畫展覽

金泉有志五十餘人의 發起와 本社支局後援으로 書畫家로 高名한 金亨鳳氏가 來泉한 機會하야 去二十七日 金陵寺布敎堂에서 書畫展覽會를 開催하얏는데 百餘名의 觀衆이 모혀 一大盛況을 이루엇다고(金泉)

假面을 벗자!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現下우리 社會의 現狀을 보라 實로 우리 社會처럼 假字만은 世上은 또다시 업슬것이다 假紳士! 假淑女! 假志士等을 爲始하야 假人이나 假假가 인學字多之 世上이라 할말이다

◇입으로 小作問題나 좀 떠들면 主義者! 글줄이나 쓰면 文士! 소위 衆압헤서 니야기 나 마데나 하면 志士로 自處하며 아모 理解와 定見도 업시 그저 育目的으로 무슨 會 무슨 團體이니 하야 그의 看板이나 내세우는 事實이나 좀하면 大衆運動의 先驅者로 自任하야 眼下無人의 態度를 取하야 能詐와 奸計로 社會를 欺瞞하고 民衆을 籠絡하는 徒輩가 잇지 不無하니 이 엇지 吾人의 歡迎할 배리요

◇그리하야 그들은 最妙한 民衆으로 하야금 妙智와 奸計를 利用하야 公職者 或은 民衆運動者라는 假裝的 탈을 쓰고 外部的으로는 公公然히 釣名을 일삼으며 內部로는 私利를 主하야 所謂 羊頭狗肉의 醜態를 보이게 된은 實로 現下 우리 社會相이 무엇보다도 雄辯으로 證明하는것이다

◇嗚呼라 此가 얼마나 民衆의 低劣을 世間에 暴露식임이며 社會的 權威의 凋落을 表明식임인가? 이 커 支離滅裂을 做出한 우리 社會의 現狀은 一로부터 十까지 모든것이 虛僞로 裝飾되고 改造되지 못한 缺陷에서 根本的으로 우리의 內面的 生活이 根本的 參하다함은 吾人의 周知하는 바이어니와 우리는 오즉 假面을 벗고 內面化하고 生命化하며 우리의 眞意志를 確立하야 再生的 人間이 되여야 할것이다

◇아! 이제 우리는 茫洋한 前途를 부여잡고 虛僞의 生活이 繼續될것을 悵歎할 것만 아니라 다가 徹底한 反省과 改造의 精神으로써 如此 過渡期의 徒輩를 撲滅하는 同時에 新時代의 新局面을 開拓하야 참된 自我를 發見함으로써 우리의 生의 發顯을 期하고 擱筆한다(長湍白素生)

地方人事

▲金素然(間島大興學校常務理事)氏는 同校事務를 帶하고 二十七日 京城으로부터 安州着
▲金龍洛(間島大興學校事務理事)氏는 同校事務를 帶하고 二十七日 京城으로부터 安州着
▲朴永煥氏(奉天勞働學院事務理事) 院務를 帶하고 開城에 來하얏다가 去廿九日에 京城으로 出發
▲崔仁煥氏(本報原州支局長) 二十九日에 五日豫定으로 洪川方面에 出張
▲朴參永(本社春川支局記者)氏는 去二十五日 本社來訪하엿다가 二十六日 歸局
▲任允宰(衡平社中央總本部)氏는 身病으로 因하야 去廿八日부터 群山世昌醫院에 入院治療中

◇寸鐵◇

◇【新義州】 正月부터 至今外지 府內各處에는 天과 猖獗이 大盛行 그 所願에 日 복 등 長鼓통에서 銀福金福이 나옴소서

◇【蔚山】 郡屬某는 年度末慰勞出張으로 大邱에 갓다가 어떤 賭博場에서 一攫千金하얏다가 도로혀 郡屬이 檢擧이 되야 解職케 되엿다나

◇【全州】 全州東門外에 사는 前時局大同團員 朴某는 戶籍別에 依하야 配定된 全州女高寄附金을 絶對로 不應한다고 故完用式인가

第二回全北記者大會

日時 四月廿四、五兩日
場所 群山公會堂
參加資格 道內에 在한 朝鮮文新聞雜誌記者
參加金 貳圓(申請時添付)
申請期日 四月二十日外지
申請場所 本國事務所(裡里東亞支局)
主催 全北記者團

新春歌劇舞蹈大會

日時 三月二十一日부터 三日間(每夜七時半開演)
場所 龍山開盛座
入場料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學生(小兒)十錢
主催 龍山乙靑年會 沿江各靑年團體
後援 朝鮮、時代、高陽支局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Mar. 31st, 1926.

THE MANAGING EDITOR

The Japan Christian Intelligencer

VI

In Seoul he lived and worked for fourteen years. His journalistic career there was stigmatized by an American critic as a failure. No doubt it was, but he is so self-conceited to think that it was not altogether so, for, besides having succeeded in trebling the circulation of his paper, he made a large number of friends among leading foreigners, Koreans and Japanese in Korea, made not a single sen of tainted money and was able to come back to Tokyo with an erect head. By the way, he attended the Armament Limitation Conference at Washington in 1921 as a correspondent and came home the next year after visiting England, France and Italy.

Under the guidance of his teacher Mr. Uchimura, and with the help of one of his dearest friends, Mr. Yoshimoto of Oxford, he has now been privileged to start this magazine. He is extremely thankful, as this is the realization of his long-cherished ambition. Neither fame nor money is his object. He is now old enough to know how empty and valueless is a thing called fame. He earns and possesses just enough to keep himself and his family independent and is thankful that he is neither a pauper nor a millionaire, for both are among the most unfortunate of men. So all that he desires and hopes now is to render to humanity whatever little service he can as His meanest soldier and most thankful servant.

英文欄

山縣五十雄氏의 自叙 (完)

可恐할 老衰病의 原因

動脈硬化症과 腦溢血(中風)

언더케 生起는가?

▼上氣되기쉬운 春季의 警戒

男女四十歲以上된 肥滿한 血色조흔 人士로서 血壓百五十미리 以上된 人士는 操心하지아니하시면 危險합니다

●博士와 學士가 推獎하는 海藻精劑는 安全히 奏效합니다

腦溢血의 前兆症狀

男女를 勿論하고 四十歲以上된 人士에게, 酒毒, 梅毒, 淋毒, 心身過勞, 肉食過多, 腎臟病, 肥胖病, 中風體質과 血統者 等이 가장 만코 또한 可驚할 早發老衰病과 腦溢血의 原因이 되는 動脈硬化症은 如何한 變化로 身體에 나타나느냐

가때때 上氣되기쉽고, 鬱血이 生되야 耳鳴이 나며 便通이 업고, 血液이 濁流하는 故로 귀에 들리는 하면 腦動脈硬化로 因하야 輕한 眩氣가 起하는 故로 어깨가 뻐은하고 목덜미로부터 뒤머리가 달리고, 또는 恒常 머리가 무겁고 記憶에 障害가 生起여서 以前것은 記憶할지라도 最近것을 이저바리게됩니다. 甚한 사람은 사람의 일흠이며 物件둔곳을 각금이저바리게됩니다 다 그것은 腦의 動脈硬化로 因하야 腦의 血行이 조치 못한 까닭이올시다. 또 非常히 感情이 興奮될때가 잇습니다. 些少한 일에 怒를 發하며, 憤해하며 또는 不眠症을 이르키여 도모지 자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잇습니다. 老人에게 아침 잠업는 것으로 말하오면 腦動脈이 硬化한 外닭이올시다. 此等의 前兆症狀은 腦神經衰弱症과 治似한 故로 普通 腦神經衰弱으로 알고 治療하지마는 잘 낫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老人性의 腦動脈硬化症으로 因한 血行의 障害에 原因하거나 또는 本病의 併發病으로 가장 만히 걸리는 것은 萎縮腎이올시다. 萎縮腎은 人生이 生活하야 나아가는데 重要한 營養이되는 蛋白이 尿와 同時에 맛흐로 조치치서, 水腫이 되기도 하며, 手指와 足指가 때때 痿痺하며, 夜間에 小便이 자지고 步行이 甚하고 숨이 막키게됩니다. 이와 가튼 사람의 血壓은 分明히 百五十「미리」로부터 二百「미리」以上에 말슴한 바와 가튼 病症이 하나만 이올시다. 以上病的으로 나아가는 것이 普通이라도 나라나거든 腦溢血中風의 突發又는 再發에 操心하시고 豫防하지 아니하시면 아니됩니다. 腦溢血로 죽는 사람은 大槪가 身體가 健康하고 血色이 조흔 사람들이올시다.

이 動脈硬化를 治療하고 其進行을 防止하야 血壓을 下降케할 것이올시다.

이잇는 體格의 所有者이올시다. 이제새로히 發表코자하는 海藻精劑의「海歸來」는 吾等의 恩人 떤海藻中으로부터 發見한 補精劑를 基本삼아 創製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服用하시면 淋巴系와 血管系의 細妙한 活動에 伴하야 臟器細胞에 達하야 病的產物의 吸收와 排出을 捉하며 動脈硬化症及此로 因한 血壓亢進을 安全히 下降케하야 中風을 主治하고 또 하나는 神經系統에 達하야 腦神經衰弱에 腦充血、히스테리ー症等을 消散하니다、繼續하×야 服藥할지라도 副作用이 全無한 故로 老年者는 勿論이어니와 한 사람에게 든지 安全한 治療와 豫防을 具備한 藥으로 推獎합니다 이 病症으로 苦生하는 人士는 治療하시고 아직 걸리지 아니하신 人士는 豫防하시와 尊重한 身體를 保護하시오 自然的으로 上下를 莫하야 服用者가 激增하야 海外外지 高評을 得하야 九段階行社를 爲始하야 諸家의 用命이 날로 더하야가며 多數한 感謝狀을 公開합니다

「海歸來」의 藥價는 二百五十錠入 二圓、五百五十錠入 四圓、八百五十錠入 六圓、千六百錠入 十一圓、其他의 特別한 高價의 藥도 有함

急할 쌔에는 郵便爲替로 하시고 急지아니할 쌔에는 振替口座로 申込하시오 送料十二錢 代金引換은 三十錢만 드시 切手로 前送하시오

日本總發賣元 東京市本鄕區菊坂町五十六番地 河合洋行 振替東京四六一八二番 電話小石川六八三五番

京城府社稷洞二一七 竹內洋行藥品部 振替京城一九一〇番 電話光化門一三一一番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四 河合洋行京城支店 電話長二五六六七番 振替京城四六七七番

▲特別히 注意 專門家의 博士와 學士와 또는 智識階級의 人士들이 眞正으로 「海歸來」의 內服을 推獎하는 所以는、動脈硬化症 血壓의 危險亢進、中風、腦充血、腦神經衰弱等에 對한 治病作用이 가장 安全하고 眞實로 爽快하게 奏効할 뿐만 아니라、고약한 副作用이 全然히 업는 까닭이올시다. 그런데 近時「海歸來」의 偉大한 聲價를 慕하야 道義를 無視하고、다만 一片營利에만 汲汲한 奸商輩의 손에 된 可憎한 것을 가지고、動脈硬化症新藥、又는 血壓을 下降케에 急造된 新藥이라고 稱하야 坊間에 續出하엿습니다、貴重한 身體를 爲하야 特別히 注意하시옵소서

▲海歸來의 光榮 「海歸來」는 國際的으로도 有効眞價를 認定케 되야 日本을 爲始하야 英領、北米合衆國、和蘭領、米領하와이、中華民國外지 同病者間에 高評을 受하야 到處信用잇는 藥店에서 販賣합니다

南에도北에도 流離의男負女戴群
농사도할수가업고로동도할곳도업시
卄三日大邱驛에二百餘名

간조선을 통하야 우리사람의생활이 날로궁핍하야저서 실로살수업는현상에 싸저잇는 동포가 그수를 알수업다는것은다시 말할필요가 업거니와 먹을곳을찻고저 정든모국과 그리운고향을 떠치고 울고마음과 쓰라린가슴을부둥키고 산설고물선 딴나라로 흘러가는동포가 근일에그수효가 날로늘어 경상북도각디에서몰려오는동포들이하도에대구 **정거장에** 수백명에달한다는데 첫머리는업고 혹은이끌며남부녀대하야 구석구석이 모혀서서 서로설움의 사정을난호면서 복바치는 원정에솟는눈물을검처못하는 그모양은 사람의눈으로서는 참아 못보겟다는데 그들을 위문겸 권송하고저대구역에나아간본보대구지국긔자는 매일가티 그들의가는곳과잇든곳을물어보건대 대개는 경북(慶北)고령(高靈)합천(陜川)영천(永川)경주(慶州)포항(浦項)등디의 소작인으로 남의땅으로농사를짓다가 그것도생활을 유지할수업고 로동을하고저하나 **로동할곳** 도업서서할수업시 갑업는세간이나마 주섬주섬판돈으로 겨우로자를 작만하야 길림성(吉林省)서간도로 농사를 지으러간다고하며그중에는 일본으로 로동을하고자 가다가부산에서 도로쫏겨온사람도 적지아니하다는데 지난 이십삼일밤에 대구역을떠나는 그들의수가 약이백이십명의 다수이엇다더라(대구)

元山港에도數百名
광제환의만원으로
등안환을특별항행

정든고향산천을등지고눈설은중국북간도룡정(北間島龍井)방면으로 남부녀대하고 가는동포가매년봄이면만하저서원산(元山)을통과하는 배에미처 타지못하고이삼일식 묵어가며 배를기다리는이가 적지안타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금년은례년에 비하야더욱격증하야 지난 이십구일의련락선광제환(光濟丸)에도만원이되고도 삼사백명이나 타지못하게되엿슴으로우선회사에서는미안하다는 생각을가지고 림시수송으로도등안환(登安丸)을동일에출범하야 청진까지 직항케하야겨우 완화되엿든편이나 이후더욱혼잡을일울는지도알수업다더라(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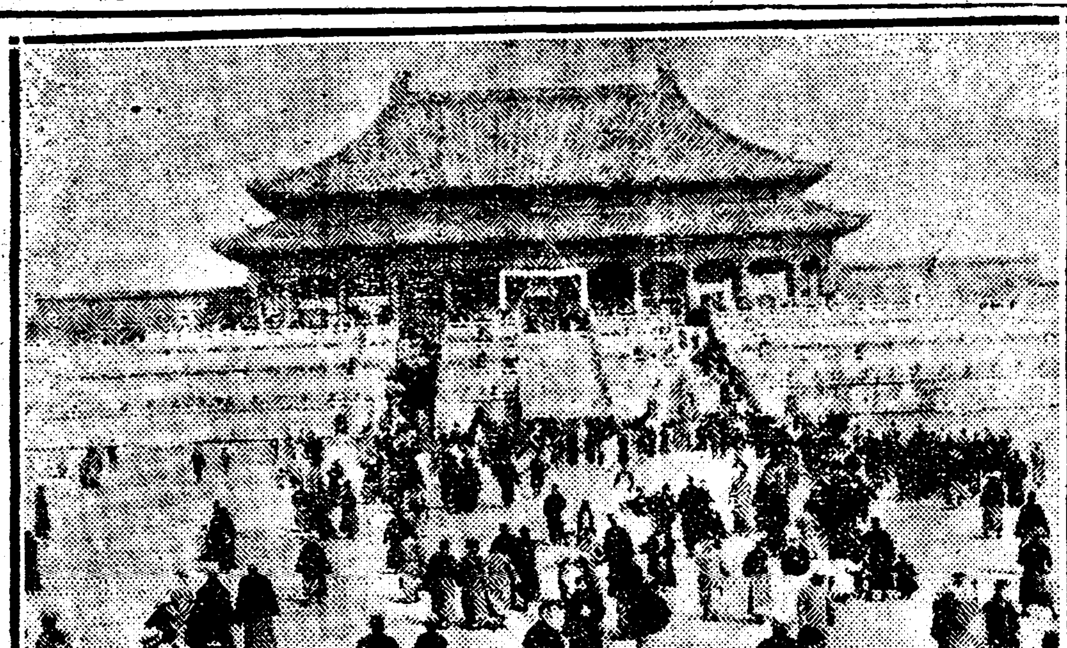
農監과舍音을
재녕서에서취됴

황해도재녕읍(黃海道載寧邑)에잇는 경성(京城)남대문안 큰 빌딩에잇서 전조선에 굴지하는부호 일본인재등구태랑(齋藤久太郎)의농장(農場)에는 수년전부터 주임이하 각디사음들이악착하게도 가난한소작인의 피를빨어먹는다고 비난이 적지아니하며 날마다소작인들이 디주에게 진정서를하든중 수일전에는 돌연히재녕(載寧)경찰에서농장주임(農場主任)김시하(金時河)를인치하고 엄중취조하든중 다시손을넓히어 재녕군내를면에 잇는악사음이란말을듯든라상섭(羅相燮)과려명순(呂命淳)과 라용섭(羅容燮)을인치하고엄중취조중이라는데 지금 그자세한말을 듯건대 이자들은 수년전부터권공모 혹은개인의행동으로도 소작인과 주인의금액을사긔횡령한 금액이칠팔천원이나되는것이폭로된것이라더라(재녕)

蠶業技手排斥
도당국에진정

전남 장성군구읍내(全南長城郡邑內)는 양잠가(養蠶家)의 집단디(集團地)로서 일년이면 춘하추간(春夏秋)의 사육(飼育)으로 인하야수만원의수입을 한다는데 요사이는 동군잠업조합의 기술원 청수(淸水)를배척하기위하야 일본인을주로한장성읍내 잠우회(蠶友會)에서는 수차전긔기술원의 경질을 군당국에 교섭하엿스나 별로효과를 엇지못하고 지난십칠일에는 김길수(金吉洙) 최길산(崔吉山) 북원경실(北原敬實) 중촌정일(中村定一) 십본이태랑(辻本伊太郎)의 오인이 진정위원(陳情委員)이 되여 당일도지사와 내무부장과 농무과장(農務課長)등을 방문하고 전긔청수 기술원의 불친절하고 기능이 부족하고 사이을인하야 못정하고 양잠가에게 대하야는 도모지 동정이업슴을인하야 만흔 손해가 낫다하야 경질시켜달라고 진정하얏다는데 그편의말을 듯건대

道當局答辯 그네들의 진의(眞意)는 잘알엇스나 장성군수로부터 하등의보고를 밧지못하고 전긔보도청수 기술원의 배척이잇다는것은 몰랏스나 될수잇는데까지는 내용을조사하야 처리하겟다하야 위원들은 성공의개선가를 부르며 도라왓다더라(장성)



寫眞說明 지난십이일은 중국혁명가손문(孫文)씨의 데일회긔신일으로 북경에서 성대한추도식이 잇섯는데사진은텬안문(天安門)안에잇는 추도식장으로 구름가티모혀드는군중

義城一帶에 無極敎가蔓延
허무한말을미더가지고
가산탕진자가다수이다

경북의성군(慶北義城郡)일대에는 요사이소위 무극교(無極敎)라는것이 점점만연되야서 옥산면화전민(玉山面火田民)중에 그주지는『시련주됴화정』만 부르는 사람이 만타는데 그시에 무극교도는 불원에정씨가 등극할터이니 농사를지을 필요가 업다고 잇는대로 재물을 서로다여갈러 먹다가 그디경이 된것이라는데 교도의확실한수효는 알수업스나 들은바에의하면 삼천여명이나된다하며 그중의 다수는 보천교도가 갑자삼월에 등극한다는 차경석에게 그만속고 금번에는 무극교도가 된다는것이라하며 본군내에 사천여명도 거의다 무극교도가된것이라하며 오는 사월칠일에군내모처에서총회까지열게된다더라(의성)

百餘靑年이 警署에殺到
원인은순사의 무리한언행으로

지난이십칠일오후십시경에충남공주경찰서(公州警察署)에는백여명의 청년군중이 쇄도하얏는데 당서에서는 물을군중에게뿌리며 축출함으로 선두에섯든 김긔태(金基泰)씨가경찰서에서 일반군중을 무시하야 물을뿌리며 모욕을한다고 질문을한바 경관은 김씨를구타하며 류치장에다구류식힘으로 일반군중은분개히녀기여 공긔가 매우험악하엿섯는데 동일오후 그곳에열린축구대회에 인부가 운동장에설비하여잇든물품을수운하며당디호원 앞을지나다가그요리집 숙수와 말성이된바 그요리집주인 일본인모와지나와서 얼마를구타하라고 선동하는 동시에 겨테서보든청년들이 그 무리한 행동을말한즉 그만그주인과 숙수가 경찰서로연락을하야순사한명이나와서 시비여하도 뭇지안코 청년들을 다려감으로 일반군중까지 경찰서로가게되야 그무리한 숙수놈을 내여달나고하바 당서에서는 물을뿌리며 군중을해산하라고해도듯지아니한다는 항으로 김씨를유치한것이라하며 경찰을한다는순사로 사실여하를 살피지안코 상당한명예잇는사람에게 불경한언사로 모욕을 한다고 질문을하는서씨와 몃사람은 당서에서 그순사가새도와서 경찰을 잘못한듯하니 분개이생각 말고 도라가라함으로 저씨는 무사히 나왓다더라(공주)

漁船三隻遭難
승조원이십여명은구조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반경 강원도통천군 금란항(江原道通川郡金蘭港)을상거한 십리쯤되는 바다가운데서 어선세척이 풍파를맛나 파선되야 승조원이십사명의생사를 알수업는중 이를구조하고자 방금원산에 정박중인 구축함(驅逐艦)에 의뢰하엿기때문에 구축함(棚)가 출동을하라는지음에 오후세시경에 통천경찰서(通川署)로부터 결사대를 출동식히여 승조원전부를 구조하얏다는 통지가 잇섯다더라(원산)

朝鮮問題講演 突然解散
연사도검속

일본동경(東京)에잇는흑우회계(係)의 사상단톄흑색련맹(黑色聯盟)의주최로개최하려든 조선문데강연회(朝鮮問題講演會)는이십구일 오후여섯시 사십분에 본향구(本鄕區)대국대학불교청년회관에서 열리엿스나 연사근등헌이(近藤憲二)의개회사에뒤미처 오분에 해산을당하고 연사들은 모두 본부사(本富士)서에 검거되얏다더라(동경뎐보)

山監暴行으로
원망이자못놉다

전남곡성군삼림계(全南谷城郡森林契)에서는 년도말을 당하야소위삼림수호비징수가불량하다하야 지나간이십사일부터 련합징수(聯合徵收)를 시작 하엿는데 그날부터오륙인식작대(作隊)를하야 각동리를 순회하는중 촌민에게 시위를하고심한데 이르러서는 가택수색양민 구타까지하야가며 송엽(松葉)한가지만눈에뜨이면 허가업시 삼림을벌채(伐採)하엿다고별별폭행을 다하엿다는데 촌민들은말하기를곡성군에 삼림계가 설립된지우금삼년이 나되엿서도엇던유권가에서는 일회수호비(一回守護)도밧지못하면서림야소유자아일이뎡보만호면사오뎡보밧게못가진잔약민(殘弱民)에게는 이러횡포를한다고원망이자자하다더라(곡성)

舒川署活動
강도사건이발생된모양

충남서천경찰서 (忠南舒川警察署) 에서는 지난십구일 부터갑작히 서원전부가 총출동을 하는중이라는데모방면으로의하는말을들으면 강도가발생된 까닭이라더라(서천)

通運人夫盟罷!
작업부의부당처치로 오십여명이동맹파업

내국통운주식회사 (內國通運株式會社)에 고용되엿든부산도우회(釜友會)데삼부회원 오십여명은 작업부(作業部)의 부당한

工事中에 人夫慘死
한명은중상

…처사에대하야 수일전부터 회사측과 교섭하여오든것이 아모효과를엇지못하게되엿슴으로드듸여이십칠일에 이르러 일제히파업(罷業)을단행하엿다더라(부산)

평북운산군운산면북동(平北雲山郡雲山面北洞)에본적을둔한국삼(韓國杉)(三)과 영흥군순천면(永興郡順川面)에본적을둔김완주(金完住)(三)의두사람은원산에와서 류하면서 원산해면매립공사(元山海面埋立工事)에종사하든바 지난이십팔일 오후다섯시반경에 공사장에서 흙을파내리는중 돌연히 큰흙덩이가떠러지며 한국삼은 머리를마저서즉사하고 김완주는 오른편다리를 상하야 방금 구세병원에입원치료중이라는데 생명에는별관계가업스리라더라(원산)

竹川勞校廢止
학생은도로모방황

긔미운동이 끗난뒤에 불쏫가티 맹렬히 일어나는 청년의향학심은날이갈사록 치성함으로 일반유지는 더욱감동되여 경남사천군죽천로동야학교 (慶南泗川郡竹川勞動夜學校) 를설립케되엿는데 물밀듯모혀드는 남녀학생

橫城에牛賊
농우에동이달어서 남의소를끌어갓다

강원도횡성군동면 로천리(江原道橫城郡東面魯川里)에 거주하는 안상근(安相根)는 당디경찰서에 잡혀 엄중한 취됴를밧는 중이라는데그내용을들은즉 그는지난십륙일 륙월경에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橫城郡甲川面舊方里)에 거주하는라원로(羅元魯)의 소한마리를 절도한바 이날까지 범인을체포치못하고 당디경찰서에서 만흔활동을 하야 오든바 몃칠전에동서리봉천(李鳳天)형사의추격으로 원주에서 체포한바 절도한원인은 도박자금이 업슴으로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야 한것이라는데 범인은 불일간원주검사국으로송치되리라더라(횡성)

無罪한學生을 訓導가警署에告發
학부형은대분개하는데
교장은훈도를옹호할뿐

령광공립보통학교오학년담임선생곡선웅(靈光公立普通學校五學年擔任先生谷善雄)이란일인 훈도(訓導)는그학교사학년생도조천섭(趙千燮)을 엇더한 과실이잇다는혐의로령광경찰서사법실(靈光警察署司法室)의 신문을밧게 한바 이에그내용을들은즉 지난십일일오후 **다섯시쯤** 하야하학시간에 전긔조천섭은 자긔집으로도라가랴고 신을신고저한즉 신이업서젓슴으로 이구석저구석 찻다가 마츰내자긔신은업고 다른신이잇슴으로 누가밧구어신고 갓나하고 그신을신고 가랴하면서도오히려 마음이 노히지안흠으로 자긔담임선생인 김치영(金致燃)씨에게 그말을알리고갓섯는데 그후닷새동안이나 지난십륙일에 오학년생도인 령광면도동리(靈光面道東里)사는박희만(朴喜滿)이가조천섭의신을 보고이것이 **내신인데** 엇지하야네가 신느냐하며 자긔신을 몰래가저갓다고 자긔담임선생 곡선웅에게말한바 이말을드른 곡선웅은 사실여하는 물어보지도안코 그어린생도 조천섭는 자긔는잘못이업다하나 그에게말한바도업시 조천섭의 담임선생에게 **알리지도** 안코바로도형사 가 도적이나잡은듯이 두팔을묶 잡고 경찰서로다리고가서 구두 고발(口頭告發)을하야 경찰서에서는 사법실로잡아다노코 두 시간이상이나 조사하다가 결국 별다른혐의가업슴으로 도로내보냇다는데 그학교학부위원 정래희(鄭來熙) 정인수(鄭仁洙) 등두사람이 교장에게 질문을한바 교장은 『자긔가직접한일이아니라』하야책임을회피하며 그책임자인 곡선웅을다려다 **자긔연혜** 안치고 『이일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겟지요마는 곡선웅은 매우온순한성격이 잇는 선생이라 악의로한것이라 고볼수는업소 그아이가 어려서 부터이러한불미(不美)한일을하면장래에도 습관이될념려가잇슬가하야 엇지하얏든지 가르칠이 아닌가함이라』고 곡선생을옹호하는 말을함으로 **질문하러** 갓든학부위원들은 하도긔가막히여 다시는아모질문도아니하고도라왓다는데 이소식을드른 학부형들은크게분개하며 엇더한 선후책을강구중이라더라(령광)

採石場에서 車夫一名慘死
마차에실엇든돌이문허저서

고양군한지면하왕십리(高陽郡漢芝面下往十里)마차부 김자근산(金者斤山)(三)은삼십일오전열시경에 동대문밧자지동(紫芝洞)채석장(採石場)에서 돌을실고 나려가다가 돌이문허지면서 차부의머리우로떠러저서중상을 당한바 즉시총독부의원에 입원시키여 응급치료를하얏스나 마츰내절명되엿다더라(고양동부지국뎐화)

江景火災頻頻
손해도적지안타

충남론산군강경면황금뎡 (忠南論山郡江景面黃金町)한소사(韓召史)의집에서 이십팔일 오후다섯시 사십일경에 화재가낫는데 그원인은담뱃불로 재잡아이가 커녀밥을 짓다가 바람에불쏫이 날리어나무에 부터서 위험하게 되얏스나소방대의 진력으로다행히 그집만 반소되얏는데 손해는약오십원가량이라고
◇동일오후 구시반경에 황금뎡 일월십사번디 김래희 (金來熙)의집에서는 연돌의 부주의로화재가일어나서 소방대원과 동리사람들은 진력하얏스나 풍세가험악함으로엇절수업시 전소되얏는데 손해는 약백원가량이라하며 복정석이옥(石仁玉)의 집에서는지난이십구일오전열시반경에또화재가일어낫는데원인은어떤아이들의 불작란으로 발화되얏는바다행이곳진화하얏다고 (강경)

背夫再嫁女
열년만에본부가차저가

평남덕천군잠상면도령리 (平南德川郡蠶上面陶令里) 리달선(李達善)(一名은溫淑)은칠팔년전에 평북강계(平北江界) 디방으로 도라다니며 로동을하다가 재작년봄에 녀자한명을 다리고 고향으로와서 그동안가정생활을 하여오든바 지난 이십사일에는 평북의주군비현(義州郡枇峴)에 잇는본부(本夫)문욱주(文旭周)가와서 그녀자를 다리고갓는데 그녀자는리선옥(李善玉)이라하며 본부의몸에 시집간뒤도한아 잇고 어린자녀가 몃식이나잇다더라(개천)

月尾島 꼿구경
텰도국에서는 긔차임금할인

오는사월이십오일는인천(仁川)월미도의앵화(櫻花)가만발할때이라 인천에잇는유지들은 관앵대회(觀櫻大會)를개최하게되엿슴으로 이에대하야 텰도국에서는 긔차임금을할인하기로 하엿다는데 보통은 왕복팔십오전으로하고 아동은 사십이전으로하리라더라

郵便物을閪失
자동차에실엇다가

전남영산포 강진간(全南榮山浦康津間) 우편물배달자동차는지난이십칠일 오후다섯시 경에령암(靈巖)에서 떠나서 병영(兵營)을 향하고오는도중에 서운전수의 부주의로 포대(布袋)가씨어저서우편물한부를서실하엿다는데 중요한 서류와소포물도 들어잇섯슬이라고당국에서는비상히고통중에잇다더라(병영)

家貰달란다고 도로혀폭행

옹진본뎡 (甕津本町)에서사진 영업하는 일본인 십우차(辻又次)라는자는 허이춘(許以春)이란 칠십로파의집을 세(貰)로어더 가지고 영업하여오는바 집세가이백여원이나 밀리도록 주지안흠으로 지난이십삼일아츰에 전긔로파가 그일본인에게가서 집세를달라고 독촉하엿든바 그는집세도 주지안코도로혀 부부가 달려드러 그로파를 문밧게밀어 내여 영에 구을니기까지하는등 온갓 폭행을다하엿슴으로 그광경을 구경하든 그부근사람은모다 분개한다는데 더욱그로파는 아모자손도업시 고적한몸으로 집세를 바더가지고 근근히생활을보장하는터인데 그러한 집세십삼개월분 이백여원이나 밧지못하고 도로혀칠십당년의 로구(老軀)에 그러한 괄시까지바든바 세력업는사람은 못살세상이라고일반의 비난이 만타더라(옹진)

振威에染病
일반이매우근심

경긔도진위군송탄면내(京畿道振威郡松炭面內)에는 지난이월하순부터 장질부사(腸窒扶斯)가발생하야 지금까지 사오명의환자와 두명의사망자가내엿는데 이로인하야 동리사람들은대단우려중이라더라(평택)

海上에서燒死
화로불로인하야

지난 이십사일오후한시에 진남포압강 비발도등대(鎭南浦前江飛撥島燈臺)압헤서 곡식을실고 황해도 안악방면으로 건너가든 목선에서 몰연히화로 (火爐)불로인하야 불이닐어나서 그배가 운데서자든 선부한명이 무참히 타죽엇다는데 그사람의주소와성명은 알수업스나 년령은한삼십된청년이라하며 배에는 별로손해가업섯는데 이급보를 접한진남포검사국 검사와 진남포경찰서경부가현장에 나아가서 상세히됴사하얏다더라(진남포)

御宮洞火災
손해삼천여원

평북귀성군관서면어궁동 (平北龜城郡館西面御宮洞)리수복(李守福)의집에서는주인리수복은 어듸로가고 부인들과어린아이들만 잇는바 지난이십삼일오후두시경에 불이일어낫는데마츰불어오는바람에 불의형세가 위급하야집두채와 이십여칸이나 되는양식이 전소되얏다는데손해액이삼천여원이나된다더라(신시)

白晝殺人强盜
범인은라주서에데포

라주군문평면 옥단리(羅州郡文平面玉丹里)근처에서는 지난이십일 백주에강도두명이 출현하야 한청년(一靑年)을 살해하고현금이백칠십원을탈취하야도망하얏는바이급보를들은라주경찰서에서는비상활동으로인하야 이십륙일에 드듸여 체포하얏는데 그내용을들으면 전긔문평면옥단리사는라종천 (文平面玉丹里羅鍾千)(三)은 벼를실고영산포선두에대이고 이벼를 운반하야매도하야가지고 오후에 차를타고 나려갓다는데 전긔범인 영산면영산리(靈山面靈山里)사는 김천석(金千錫)이가 이벼가도착하는것을보고피해자의뒤를따라가며 차가지라고나려가서 문평면옥단리 근처에서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하얏다는데 아즉한명은 체포치못하얏다더라(영산포)

斷食四十四日
세계뎍파긔록

화란(和蘭)의단식선수 (斷食選手)『우오리-』씨는단식한지사십사일만에 류리상자(硝子箱)에서나왓다는데이것이지금까지단식의세계뎍파긔록이라더라 (나우엔뎐보)

危險한兒戱
렬차가전복될번

지난이십삼일오전십일시십분복계역(福溪驛)으로부터오는렬차가원산역(元山驛)에도착되기전원산부산제동(元山府山祭洞)의렬도선로에나무동네다섯개를가로노하 렬차의전복을 재획한자가잇섯스나다행히 긔관사가발견 에사는 김희두의 넷재아들순룡(二)의 작란으로 판명되야지난 이십사일에 불러취조하고 훈계방면하엿다더라(원산)

昨日엔參領 今日엔刺身鬼
필경도적질을하다

시내중림동(中林洞)삼칠번디고지청(高枝陞)(四四)은 작년 십이월오일부터 지난삼월오일 까지약삼개월동안을 두고 시내각처로도라다니면서 구십여차나 고무신구두양복기타약사백여원어치를절취한 사건으로 이십구일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구(具)재판장의 심리와 풍뎐(豐田)검사의 립회하에 공판을 개뎡하고 징역이년의 구형을바덧다는데 전긔고지청은 한국륙군참령(陸軍參領)으로잇다가 **군대해산** 하는통에 관직을버서노코 락당한후 오연히화류계에 출입하게되어 환락장에서 유야랑의 간장을녹이는 중 … 자연히 『모루히네』주사까지맛기시작하야 달이가고 해가가는동안에 그중독은 끌수업시깁히 사무치게 되여서 약간남아잇든재산도 그럭저럭 탕패하고 마럿슴으로 점점정도가 놉하가는『모히』주사를 마질도리가 업서서 **마춤내** 거리거리로 도라다니면서 걸식을하야 다가 매일 몃대의 『모히』주사를 마저오든중 점점이심하야 효과가업서짐을따라 그것도 할수가업시 되는고로 그와가티 절도질을하야 주사를 마진것 이라는데 범인은공판뎡에서『지금에와 서는후회막급이라』는말을 부르지즈며 하염업는 눈물을흘렷다더라

白白敎徒가 다시侍天敎로
박승건을배척하고

평남개천군외동면(价川郡外東面)과덕천군잠상면(德川郡蠶上面)디방에근거를둔 박병양박승건(朴丙陽朴勝健)의부하 백백교도(白白敎徒)들은 전과 박씨를 일제배척하고 시텬교(侍天敎)로 전과가려 한바어니와 지난이십오일에 덕천군사문시(沙田市)교당에 그교의간부이십여명이모히여 박승건은 원래소유재산이전무하고 교인의 헌납금으로가옥과 토디를사고잇다가 금번에 일혈팔분에 가옥토디를 사천백여원에 팔아가지고 평원군공평면상이리 (平原郡公平面上二里)에이전하야 매수한토디가옥을오는사월십오일안으로말어다가 박승건에게가산탕진(家産蕩盡)한자에게 분배하여주기로하고다음과가티 일곱가지 조항을 결의한후에 최고간부이하 십여명이서명날인하엿다더라(개천)

一、平原郡公平面上二里所在朴勝健의 新買受家屋土地를 本年 四月十五日內로 執行委員을派送하야放賣한後代金은家産蕩盡者에게卽時分給할事
一、公馬一匹及農牛四頭를前記敎堂으로搬來할事
一、步轎二座龍包二介를持來할事
一、右物을舍宅設氏에게分給할事
一、右金으로써敎堂留在債金八百五十餘圓을報償할事
一、右執行委員은五人으로定할事
一、敎堂의基址와寄宿舍四間은金乘福에게還付할事

癩病者凍死
영양이부족하는중에 길가에서어러죽어

경북성주군 성주면대황동(慶北星州郡星州面大黃洞)에서 십칠세된 문둥병자 한명이 지난 이십팔일오후 구시경에사망하엿다는데 당디의사의 검안한결과 영양부족한중에 얼어죽은것으로판명되얏다는바주소성명도알수업다고(성주)

永登浦에發疹病
환자십칠명

영등포(永登浦)경찰서 관내의 발진지부스(發疹窒扶斯)는 거가일월발생한이래 지금까지에 환자가열일곱명에 달하얏는데 지금도오히려 만연되는중이라더라

平壤小火

지난이십구일오전아홉시반경에 평양부수옥리 (平壤府水玉里)이백팔십번디 김승원(金承源)의집에서발화하야 동오십분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사원이다하며 출화원인은 방화인듯하다고(평양)

原州小火

지난이십오일오후네시경에 원주군원주면 화천리(原州郡原州面花川里)구백삼십사번디 김영근(金永根)의 집에서 불이나서 맹렬한바람에 한시간동안이나 타서 그집은전소되엿스나 동리사람의 진력한결과 연소는되지아니 하얏는데 원인을 됴사한즉 김영근의모친 칠십구세된지씨(池氏)가군불을 때다가 그와가티 된것이오손해는삼십원가량이라고(원주)

仁川에棄兒

인천부룡리(仁川府龍里)이백륙십일번디신영순(申永淳)의집에는지난이십칠일 고요한밤 열한시경에돌연히 대문안에서 어린아이의우름소리가 들림으로 그집사람들은 곳뛰어나가서본즉 난지불과두달되여 보히는 사나이엇섯다는데 어린아이품속에는 단지조고만배지에다 가유정월십일일생이라고쓰여잇슬뿐이엇다하며 그집주인되는신영순은슬하에 혈육자식 한아업든터이라 드러온것을 보고매우반겨하는동시에잘양육하겟다고(인천)

安岳火災

안악군안악면신장리 일백오십일번디 (安岳郡安岳面新長里) 홍성우(洪成祐)의집에서는 지난이십오일 하오일곱시경에 불이 나서집가풍이 전소되엿는데 마츰그동안은 쏙풍이심하여 불길은 점점맹렬하여 가고 소화긔관이 불비한촌락이라 나종에는불도쓰지못하고 말엇는데원인은됴사중이라고 (안악)

휘파람

▲다수한동민이 매부허가(賣付許可)를 請하는데 축하고오천여원을드려관개공사 (灌漑工事) 까지한것은허락지안코서▲일개일본인이청원한것을허락하여준 행정관령이 함경북도경흥군(咸北慶興郡)에잇다▲그들의눈에는 다수한 조선인은보이지안코 한사람의 일본사람만 보이는모양이다 ▲그리고서도권유비슷하게하는말이 그일본사람에게가서 소작권을 엇든지 그러치안흐면 공사비를 청구하라고 ▲할말이업거든 차라리일본사람에게 주고십허 주엇다고솔직하게말하는것이 사내답지안흔가▲그자세한 경로를 알려는 독자는 본보작일부조간을 보시면알뜻

漁船顚覆으로 三名慘死
칠명은다행구조

함남북청군 청해면장호리(咸南北靑郡靑海面長湖里)안룡진(安龍鎭)의 어선은지난이십일에해상에서 풍랑을맛나 전복되얏슴으로 어부일곱사람은 간신히다른배의구조로살엇다는데 세사람의시톄는아직찻지못하얏다더라(북청)

卄餘戶全燒
동경에또다시화재

삼십일오전한시삼십분경에일본동경시외뎐단뎡 (東京市外田端町) 활동사진상설관뎐단『키네마』에서불이일어나서동관을위시하야 부근이십여호를 전소케한후 동두시가지난후에 겨우진화되엿다더라(동경)

◇訂正 本報一千九百八十號夕刊欄外에記載된『鐵原窃盜團』記事中 朴宗㷆、柳五恒兩人은强窃盜團主犯과共犯한事實이업기 玆에訂正함 大正十五年三月三十日 本報鐵原支局

京城(南山町)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南山(三四番)◆振替京城
社長 李夏榮
大陸고무 我고무鮮界元祖
京城鍾路(普信閣前) 電話光化門七六五番◆振替京城七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六(南大門外停車場前)
同會社總販賣部支店

燒酒以外에黃海道의良酒도有하오니一次試用하여보시옵 (麥酒瓶入)
營業種類 一、燒酒釀造 一、小麥粉製粉 一、穀物貿易 委托販賣 並精米業
沙里院 朝陽釀酒商會 電話長二六番 略號 (又)조
黃海道黃州郡花山東里
分店 朝陽釀酒商會分工場

果樹苗木 特價提供
開城池町五七三
安山農園
振替京城一三七七八番
說明定價表進呈

診察時間 自上午九時至下午六時
京城府鍾路二丁目四四番地
口腔外科 齒科一般
金溶瑨齒科醫院
電光七九九番
齒科醫師 金溶瑨

ハーモニカ 하-모니카
밧다후라이製造元
日本樂器會社로부터專門家招聘
調律修繕並、吹奏教授
當店에서買求하시는一個以上의『하모니카』에는三個月間無料修繕의保證券을附하며價格도壹割引◎修繕料貳拾錢以上
京城明治町本通 林田樂器店 電話本局二二八六番

大高評을밧는 內服用六○六號
가래톳 橫痃、下疳(감창)을手術치안코治療함
멍우리와 瘴氣 업서지며
頑固한 梅毒에도 神妙함

橫痃(가래톳)과下疳(감창)으로梅毒一般의治療는現今六○六號注射가第一有効한것으로專門家가使用하나此는往往副作用이잇슴으로注射하려하는사람이만은지라、또病質體質에依하야八九回나하지아니하면안됨으로自然莫大한費用을要하며又患者는秘密히治療코자하는지라此를遺憾으로生覺하야는까닭으로醫師를시려하는傾向이잇는지라 博士戰律先生은羽根田醫學士와協力하야苦心研究한結果內服六○六號라하는內服藥『セーピン』을發見한바이니 本劑는梅毒을除去하는故로橫痃下疳에特効가잇고 一期二期三期에도有効하며 病毒이入骨한梅毒에도大効가有하니 本劑를服用하면後에는 毒의再發이 업나니 及諸血液淨化와細胞의新陳代謝를하게하며 血毒、毒物을排除하는故로天下의高評을바드며 醫學博士諸氏로부터其實効를推賞함이니 本藥은말할수업시有効하고同病으로辛苦하는분은來店하시거나來店하기어려운분은詳細說明書無代進呈하는故로明記하야申込하시요
藥價 一號輕症用金五圓、二號重症用金拾圓、三號頑固用金貳拾圓、試用分金貳圓、다만嚴重한木箱에너허서郵送 (세-빈은一號二號三號의三種이有한데藥力이大大强함) 함送金은振替或은小爲替代金引換도取扱함
大日本總發賣元
京城支店 柴崎仁壽堂大藥房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停前
京城黃金町一丁目(電話本局一六六○)(振替京城二四一五八○)
附屬醫院 本支店內에附屬醫院의設備가有하야何人에게던지無料診察治療를하오니患者는來店하시오